



대한인쇄문화협회, 미국시장개척단 파견 양질의 바이어 상담 · 미국 첨단산업 산실 실리콘밸리 방문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7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시장개척단은 11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호텔 1층 페어몬트 호텔 프렌치룸에서 진행됐으며 바이어 업체와 1:1 상담을 통해 120만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또한 11월 7일에는 애플사와 인텔 등이 위치한 실리콘밸리와 스탠포드대학을 견학했다.

글 | 안세민 기자 heroic127@print.or.kr

이번 미국시장개척단의 파견은 정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쇄수출센터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하나로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을 단장으로 청아문화사, 아시아프린팅, 대한문화, (주)타라티피에스, (주)드림인쇄, 한국소문사, 화인DM 등 7개사가 참가했다. 인협의 임직원을 비롯해 미국 현지의 에이전트는 시장개척단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특히 2011년에 처음 시작한 시장개척단을 기존 일본에서 미국으로 지역을 이동해 진행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이외의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실제 실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주지역수출 방안 적극 모색

2011년부터 시작한 시장개척단은 그동안 한류열풍과 일본대

지진으로 내수시장의 불안을 겪고 있는 일본을 주요 수출국으로 선정해 3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시장개척단은 매해 8천만 달러 이상의 인쇄물 수출을 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8180만6000달러치를 수출해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했던 최대 시장인 미국을 타깃으로 했다.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만 승부하던 중국업체 등과 교역을 진행하던 미국업체들에게 미국 업체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높은 품질의 인쇄물을 생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한국의 업체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이런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주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1. 대한문화(대표 강완성) 수출상담 모습
2. (주)드림인쇄(대표이사 박수용) 수출상담 모습
3. 한국소문사(대표 박성구) 수출상담 모습
4. 아시아프린팅(대표 이국홍) 수출상담 모습
5. 청아문화사(대표 김남수) 수출상담 모습
6. (주)타르티프에스(대표이사 이재수) 수출상담 모습
7. 화인DM(대표 김익환) 수출상담 모습

개별 상담 보장

이번 시장개척단은 기존의 시장개척단과 마찬가지로 국내업체들과 현지 업체들이 총 7개의 구역으로 나눠 테이블과 파티션을 설치해 철저한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실은 각사에서 참가한 참가자들이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특히 이번 시장개척단은 7개 업체의 주력 업무분야를 철저히 고려해 개별 상담을 원칙으로 고르게 분배함으로써 국내 업체 사이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했으며, 상담시간을 지정해 미국 업체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불참한 업체에게는 연락 후 직접 업체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방문도 이뤄지지 않은 업체들은 국내 참가업체에게 담당자 연락처를 전달, 상담회가 끝난 후 전화나 이메일로 추후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담회장 앞에 준비된 대기실에서는 상담을 기다리는 현지 업체들을 위해 간단한 다과를 마련했고, 상담을 마친 후에는 각 업체별로 준비한 기념품과 샘플들이 한지쇼핑백에 담겨 전달됐다. 상담한 업체들을 기억하고 메모가 가능하도록 플라로이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사진을 한국과 미국 업체에게 각각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상담 진행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

많은 바이어 발굴 노력 필요

지난 11월 19일 인쇄문화회관 5층에서는 '2013 미국시장개척단'의 해단식이 개최됐다. 시장개척단 단장인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의 진행으로 개최된 해단식에는 (주)아시아프린팅 전복순 이사, 대한문화 강완성 사장 및 강영지 대리, 타르티프에스(주) 이원순 고문, (주)드림인쇄 박병선 실장, 한국소문사 박정호 대리, 화인DM 김익환 사장, 인협 유창준 전무, 이종찬 국제부 부장, 안세민 편집부 과장이 참석했다. 해단식 자리에서는 상담실적과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한 확인과 2014년에 진행될 시장개척단 행사에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처음 진행된 2013년 미국시장개척단에서는 일본보다 양질의 바이어 참석과 행사장에 방문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직접 방문이 좋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바이어들의 정보나 특징을 좀 더 빨리 각 사에 알려줌으로써 미팅을 진행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행사에 참여하는 국내업체보다 상담장에 오는 바이어들에게 좀 더 편리한 위치와 구조를 제공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행사가 진행된 샌프란시스코 파이몬트호텔



행사 홍보 및 준비 자료



행사장에 마련된 디카